



생명보험 상위보험회사 3/4분기 경영실적 악화

이소양 연구원

■ 3/4분기 중국인수생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60.9% 급락한 마이너스 23억 위안, 신화생명의 당기순이익은 16.2% 감소한 4억 위안에 그침.

- 자본시장 불황으로 인한 투자자산 감소에 따른 손실과 투자수익률 하락, 방카슈랑스 해약환급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.
 - 3/4분기 중국인수생명의 투자자산 감소 금액은 139억 위안, 해약환급금은 10.2% 증가한 110억 위안을 기록하였고 1월~9월 투자수익률은 1.9%p 하락한 2.2%에 그침.
 - 3/4분기 신화생명의 해약환급금은 44억 위안으로 4.5% 소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감소 손실은 776.8% 급증한 28억 위안을 기록, 1월~9월 투자수익률은 2011년 말에 비해 1.6%p 감소한 2.2%에 그침.
- 보험전문가들은 자본시장 불황을 감안해 3/4분기 평안생명 및 태평양생명의 당기순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.
 - 평안보험그룹회사와 태평양보험그룹회사는 모두 3/4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였으나, 각 소속사인 생명보험회사와 관련된 당기순이익은 따로 공개되지 않음.
- 한편, 9월까지 중국인수생명, 평안생명, 신화생명 및 태평양생명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각각 33.2%, 12.7%, 9.8% 및 9.5%의 생명보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.

■ 앞서 10월 2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자금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였는데, 이 규제완화 조치로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영실적은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- 해외투자 규제완화 조치에 따르면 보험자금의 해외투자대상은 기존의 홍콩과 마카오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5개 국가 및 지역, 투자종목은 기존의 주식·채권·예금 등 자산에서 양도성예금증서·비(非)상장기업의 지분, 콜머니·단기 정부채권 및 부동산까지 확대됨.

(하위망, 10/30, 신량망, 10/23, 10/30 등)